

유성장터만세운동

유성온천축제

길놀이, 유성학춤
수신제

풍물대동제 및 단오제

정기문화답사

특성화사업

유성의 역사

유성호텔

유성 예술인 인터뷰

〈소소아트시네마〉 서명선 이사장

〈사벌〉 박경숙 대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문화유성

2024 Vol. 228

www.yuseong.or.kr



06



02 유성장터만세운동

06 유성온천축제

길놀이, 유성학춤
수신제

12 풍물대동제 및 단오제

12



17 정기문화답사

20 특성화사업

26 유성의 역사

유성호텔

28 유성 예술인 인터뷰

<소소아트시네마> 서명선 이사장
<사발> 박경숙 대표

17



3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유성이알림단, 유성이전통단
유성이행복단

2024 유성장터만세운동 및 의병제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유성문화원이 삼일절 105주년을 맞아 “2024 유성장터 만세운동 및 의병제”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행사가 중지되고 실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던 유성장터 만세운동 및 의병제가 이번에는 3월 29일 오후에 유성시장 장터공원 유성의병 사적비 앞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성의병사적비 앞 국화꽃 헌화, 태극기 꽃기를 시작으로 만세운동 재현 및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어린이들 체험 부스와 기념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주요인사로서 이재웅 유성문화원장을 비롯 임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송봉식 구의장 및 구의원, 조승래 국회의원과 기관 단체 등의 소개에 이어 축사가 있었다.

이재웅 유성문화원장은 “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곳 유성 장터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펼친 대전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입니다. 유성 장터 만세운동과 의병 활동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이어갈 뜻깊은 행사를 이 자리에서 지역 구민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준 행사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뒤 유성시장이 개발되면 의병사적비의 존립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발이 되어도 현재보다 더욱 좋은 환경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식전공연 : 유성장터의 함성으로 알림단의 연극공연이 진행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재웅 유성문화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



조승래 국회의원



송봉식 구의장



광복회 유성 대덕연합회 김병우 회장

광복회 유성 대덕연합회장은 본 행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유성의병은 을미사변 이후 1895년도에 최초로 의병활동이 일어난 곳이고요, 또 3·1 만세운동은 대전 유성에서 가장 먼저 1919년 3월 16일날 일어났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의병이 되고 독립투사가 되어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병 이상수 손자인 이인기씨는 오늘의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조상님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기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4년간 못하다가 다시 105주년이 돼서 이런 행사를 마련한 유성구청, 보훈청, 유성문화원, 관계자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길이길이 선조들의 그 뜻과 얼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유성시장이 울리도록 만세삼창을 외치며 공식행사를 마쳤고, 이어서 식후 행사가 진행되었다.



의병 이상수 후손 이인기



성악가 바리톤 박천재 공연



유성문화원 진도북춤 무용단의 공연



66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시절 순국선열들의 철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69



태극기 타투스티커 체험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2024 유성온천문화축제, ‘길놀이, 유성학춤’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지난 5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3일간 온천문화공원 일대에서 ‘2024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날 길놀이, 설장고 놀이, 소고 놀이, 유성학춤 등 다채로운 행사를 관람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보았다.

가장 먼저 진행한 프로그램은 ‘수신제 길놀이’이다. 마침 온천수 채수를 마친 행렬이 보였다. 대전 유성의 호텔 5곳에서 채수한 온천수 항아리를 들고 행렬하였다.

수신제 길놀이(유성풍물연합회)



유성온천문화축제의 화합의 도모하며 유성풍물연합회가 길놀이를 진행했다. 신명나는 풍물놀이 행렬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았다. ‘들썩들썩’ 어깨춤이 절로 났다.

설장고 놀이(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다음 무대는 ‘설장고 놀이’였다. 설이란? ‘으뜸’이라는 의미이다. 장구를 어깨에 메고 다양한 장구 가락에 솜씨를 보이는 것에서 유래한 것인 ‘설장고 놀이’이다. 주 무대는 설장고 놀이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가득 찼다. 관객들은 순간순간마다 감탄과 환호를 연발하며 무대를 바라보았다. 춤 자락과 장구 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 장구소리에 어깨가 들썩들썩 신이 났다.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과 한국생활춤연구회가 함께 준비한 작품을 선보였다. 설장고 놀이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나라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공연을 보는 이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소고 놀이(충남대학교 무용학과)



‘통통통’ 소고놀이 춤이 파도 물결을 이루면서 신명 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관객들은 소고놀이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보였다.

온천여신의 춤(정은혜 무용단)



온천 여신이 아름다운 춤사위를 펼쳐 보였다. 정은혜 무용단이 준비한 온천 여신의 춤은 맑고 투명한 유성 온천수의 느낌과 고즈넉하고 대전의 분위기를 잘 표현했다.

학이 온천의 여신에게 다가갔다. 온천의 여신과 학이 만남이 이색적이었다. 함께 노니는 모습이 고즈넉한 유성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였다.

유성학춤(정은혜 무용단)



학의 날갯짓이 우아하고 고고한 자태를 뽐냈다. '유성학춤'은 대전 유성온천의 지역 설화에서 착안한 전통춤이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존 전통춤인 '학춤'을 보존하면서도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춤으로 재탄생하였다.

학의 고고한 자태와 장엄함 움직임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유성학춤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분이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한 관객은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며,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문화 체험이 되었습니다."라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이번 유성온천문화축제에서 선보인 유성학춤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문화 공연이 계속 이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길 바란다.

2024 온천수신제

유성구민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하는 온천수신제 및 유성온천수작정놀이

유성문화원 조수진 기자

2024년 온천수신제가 유성온천문화축제 첫날인 5월 10일에 온천로 일원 온천탑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온천수신제가 있기 전 길놀이와 유성학춤 공연으로 많은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온천수신제가 시작이 되었다.

온천수 봉송단이 온천탑 앞에 도착하고, 제례의식에 앞서 4명의 헌관들과 각 호텔 대표자들의 온천수 합수식이 있었다. 이어 수신제례 거행을 위하여 제례의식 안내 및 제관들 소개가 있었다.



(위) 기념공연 : 유성학춤 (아래) 제관들



온천수 합수식



초헌례 및 축문낭독

헌례

사신례

온천탑 분수 물기둥

올해 초헌관은 유성구청장 정용래, 아헌관은 유성구의회 부의장 인미동, 종헌관에 유성문화원 원장 이재웅, 현관에 관광진흥협의회 회장 이재하 분이 맡았다.

수신제는 제주 및 제집사들의 관수 세수이후 참신례 및 재배, 분향례 및 재배, 초헌례(구청장), 축문낭독(진잠향교), 아헌례(구의장), 종헌례(문화원장, 관진협회장), 현례(관진협회장 및 호텔대표일동 총 7명), 음복례, 사신례, 망예례 순으로 진행이 된다.

모든 제가 끝나고 나면 온천탑 분수 분출로 온천수신제를 자축하는 분수대 물기둥이 장관을 이루게 된다.

유성 온천 수신제는 옛날 궁중에서 행해지던 정제와 일반 시민들이 마을단위에서 행하던 우물제 의식을 기초로 현대 감각에 맞게 재조명하여 고증을 거친 제례 의식이다. 유성 온천수의 영원한 용출을 기원하며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매년 온천문화축제 기간 첫 날에 제를 지내오고 있다.



길놀이와 유성학춤 또한 수신제의 상징이며 올해는 수신제 이후 유성온천놀이가 더해져 볼거리도 더 풍성해졌다.

수신제가 끝나고 온천로 광장에서는 풍물단의 신나는 연주가 다시금 시작되었다.

대전민속예술연구회의 유성온천수착정놀이공연이 시작되었다.

풍물단의 북, 팽과리 소리와 함께 놀이의 시작을 알린 후 초신제를 올리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곧이어 가래질, 둑 쌓기, 둑 주변 돌쌓기, 새참먹기, 힘겨루기, 풍물놀이, 온천수가 캄캄한 나오도록 기원하는 용신제 순으로 유성온천착정놀이가 신명나게 치러졌다.

수신제는 전통적인 제례의식의 모습으로, 온천놀이는 서민들의 일상 속 한바탕 놀이의 모습으로 보여준 공연이었지만 두 가지 행사 모두 온천수의 영원한 용출을 기원하는 바는 같았다. 또한 모두가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바람으로 잘 치려진 온천 수신제가 앞으로도 잘 유지되고 보존되길 바래본다.



득 주변 돌 쌓기

용신제

2024년 단오제 및 풍물대동제를 개최하다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유성문화원에서 2024년 단오를 맞이하여 단오제와 풍물대동제를 개최하였다.

단오제는 한국의 전통축제로, 오랜 역사가 있다.

이 축제는 제례, 단오굿, 가면극, 농악, 농요 등 다양한 무형문화 유산과 함께 그네뛰기, 씨름, 창포 머리감기, 수리취떡 먹기 등이 전승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높은 날”이라는 뜻이며, 유성문화원에서는 이 중에서 단오절 행사로서 부채 만들기, 창포물 손 씻기, 전통악기체험, 수리취떡 수박 화채 먹기, 전통놀이 등을 하였다. 풍물대동제는 관내 12개 동에서 12개 농악팀이 참여하여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유성문화원의 김궁원 해설사는 “단오날은 예전부터 음력 5월 5일 대개 모내기를 끝내고 쉬는 날인데 그날 가장 햇볕이 좋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그날을 맞이해서 씨름이나 그네뛰기라든지 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를 즐겼습니다. 오늘 이 창포는 옛날부터 뭐 좋은 비누라던지 샴푸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로 머리를 감면 머리가 윤이 나고 깨끗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했습니다.” 라며 창포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170여 명이 체험학습에 참여하여 옛날 문화를 체험하고 전통놀이도 체험하며 즐겼다.



단오 부채 만들기



박윤경 감성 캘리그라피 강사는 “부채 만드는 체험학습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단오를 기점으로 해서 더위가 올 것 같은데요. 더위를 물리쳐줄 부채에 소중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써볼 수도 있고 써주기도 하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부채만들기 체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행사장의 무대쪽에서는 풍물대동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풍물대동제에는 앉은 반 10개 팀, 선반 2개 팀, 총 12개 팀이 참여 각 팀의 기량을 자랑하며 하루를 즐겼다.

온천 2동 풍물단 조숙자 단장은 “풍물단 활동을 하며 각종 행사에 출연해 많은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유성문화원에서 단오제와 겸하여 대동제를 실시하는 데 너무나 즐겁습니다. 풍물 대동제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기쁨을 같이하고 단오제를 즐기면서 풍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풍물은 노인성 치매를 물리칠 수 있고 생활 활력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하셨으면 더 좋겠고요. 저 또한 항상 즐겁운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를 즐기는 유성구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송봉식 구의회 의장은 규모는 다소 작지만 매년 단오제를 준비하여 추진해주는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했다.

풍물공연 순서는 즉석에서 추첨을 통하여 정하고, 이재웅 유성문화원장의 유성 풍물 한마음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에 이어 각 팀의 풍물경연이 있었다.





행사 막바지에는 2024 한마음 풍물대동제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장과 꽃다발을 증정하고 감사를 표하였다.

풍물대동제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초대가수의 무대로 더위를 이겨내는 음악과 함께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서천으로 답사 어때요?

2024 1차 정기문화답사, 서천의 풍요로움을 느끼다!

유성문화원 변정은 기자

#1 유성문화원 집결(09:00 ~ 09:30)

충청남도 서남부, 도내에서 가장 작지만 서해와 접해 있어 풍부한 해양 자원을 품은 지역, 서천. 저녁 8시가 되면 마을이 고요하게 잠들고, 해가 뜨기 전 어선이 먼저 바다의 불을 밝히는 서천이, 유성문화원의 2024년 1차 정기문화답사 장소이다.

정기문화답사 참가자들은 아침 9시 30분까지 유성문화원 정문에서 집결하여,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인 장항송림산림욕장과 장항스카이워크 전망대를 향했다. 출발에 앞서 답사의 성공과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송봉식 구의장, 인미동 부의장, 김미희 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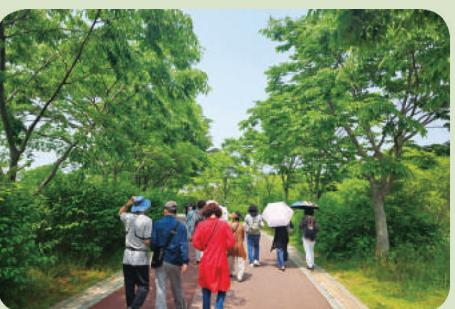




#2 장항산림욕장 산책길(11:00~12:10)

문화원이 준비한 과자 꾸러미를 손에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장항송림산림욕장에 도착해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한 일은 살아있는 생태도시, 서천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자연이 주는 활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장항산림욕장의 곰솔은 바닷가 모래를 보호하여 바다생물의 산란장 역할을 하고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한다. 바다 생태계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곰솔 숲은 1989년 국가공단 조성계획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갯벌과 숲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낸 숲이다. 그래서일까, 전망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도 곰솔 숲의 장황한 풍경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수풀이 우거진 곰솔 사이로 보이는 서해의 수평선과 뺨을 어루만지는 바닷바람은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다정한 메시지 같았다.



#3 장항산림욕장 및 장항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람 (11:00 ~ 12:10)

15m에 달하는 장항스카이워크 전망대에 올라 소나무와 눈을 맞추었다. 스카이워크 앞바다는 기벌포해전이 일어났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기벌포해전은 나당 전쟁 중인 676년 신라와 당나라가 금강 하구인 기벌포 앞바다에서 벌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는 20만 대군을 격파하여 나당 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적막한 서해바다 위로, 한 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백제군, 신라군, 일본군, 당군대의 환영이 겹쳐 보였다.

장항산림욕장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이다. 금강이 서해와 만나 형성된 하구갯벌을 비롯하여 지형에 따라 모래, 펄, 자갈갯벌 등 여러 형태를 보인다. 갯벌 끝자락에는 높다란 굴뚝이 세워져 있다. 굴뚝이 이질적이다 했더니, 일제강점기 때 수탈을 목적으로 세워진 제련소였다. 산림욕장은 이때 당시 분출된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서천 갯벌이 품은 애恸한 사연을 반추하며, 역사의 장엄함과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식사(12:25 ~ 13:25)

장항 관람을 마치고, 서천의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맛보는 푸짐한 음식에 입맛이 살아났다.

#5 국립생태원(13:35 ~ 16:15)

든든히 배를 채우고 이동한 다음 장소는 국립생태원이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 생태 전시관으로, 올해 벌써 10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의 생태 전시관이다.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구리 구역, 하다람 구역, 에코리움 구역, 고대륙 구역, 나저어 구역, 연구교육 구역...다채로운 테마의 생태관광 코스를 향해가는 발걸음은 경쾌 하기만 하다. 참가자들은 국립생태공원에서의 자유시간을 만끽했다.

#6 유성문화원 복귀(~18:00)

장항송림산림욕장, 장항스카이워크 전망대, 국립생태원. 세 가지 관광지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오는 길, 참가자들에게 소감을 물었다.



참가자 A씨

서천에 국립생태관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생태관의 기획과 짜임새가 훌륭해서 다음 기회엔 손주들을 데리고 오고 싶네요. 사실, 유성구에 살면서도 유성문화원이라는 기관을 몰랐었는데, 지인 소개로 참여하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소풍이었습니다.



참가자 B씨

바쁜 생활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이런 곳에 놀러 오기가 쉽지 않은데, 문화원에서 준비해 주신 덕분에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왔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기문화답사가 지금보다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하반기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실의 활력소가 되었던 힐링 시간이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던 2024 1차 정기문화답사. 눈 깜빡하는 찰나에도 변해있는 세상에서,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 느림의 미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나무가 자라 숨을 허락하는 것처럼, 파도에 깎인 바위가 부드러운 모래가 되는 것처럼, 끝없이 순회하는 자연과 같은 마음으로 곁에 있는 이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리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

| 이재걸 대표의 인문학 콘서트 |

내 자녀의 인간관계

소통과 조화

유성문화원 한성희 기자



유성문화원은 설립 30주년 기념 특성화 사업으로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1회차 강연은 <내 자녀의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한국 여가문화 지원센터 좋은놀이문화연구소 이재걸 대표의 <소통과 조화>라는 주제로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10시 유성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주말 아침, 참석한 분들과 함께 인문학 콘서트에 오게 된 이유와 자녀와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강의는 시작되었다. 청소년 지도사로 30년 넘게 활동해 온 이재걸 대표님은 풍부한 교육 경험 사례로 이야기 나눠주셨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중요한 역할,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에 이야기를 해주셨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코로나 시대 때 부모님이 아이들과 소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질문을 하셨다. 아이들과 식사 시간에 서로 대화보다 영상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1회차
이재걸 강사
내 자녀의 인간관계
: 소통과 조화로 크는 아이들

2024 유성문화원
우리 아이와 눈
소통과
좋은 놀이문화



'내 머리가 내 몸을 제어 못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양손을 이용한 손 유희 활동을 진행했다. 간단한 동작을 손과 말이 다르게 하는 활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동작도 하기 어려운데 자녀를 바꾸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내용을 활동으로 알려주셨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아이와 부딪혔을 때 뒤로 물러나는 상황도 설명해 주셨다.

이재걸 대표님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5학년 6학년 같은 담임 선생님께 원예와 음악 그리고 여러 게임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15년 후 대학에서 음악과 놀이지도 수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특별활동이 지금의 직업을 만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아이와 눈높이 대화를 하며 나전달법(i message) 통해 부모의 생각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아이에게 감정이입이 되지만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기, 비교하지 않기,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이재걸 대표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해에 대한 방법이다.

- | | |
|--|---|
| ① 내 머리도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③ 자신도 모르게 경쟁하며 판단한다.
⑤ 재미와 흥미가 없으면 교육에 관심도 없다.
⑦ 내가 하고 싶어야 남들도 하고 싶다. | ②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한다.
④ 서로의 실수를 인정할 때 공감대가 형성된다.
⑥ 모든 일은 할 만한 가치에 의미 부여를 한다. |
|--|---|

내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존감을 키워주는 대화가 자녀의 인간관계를 좌우한다는 주제로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와 슬기롭게 소통하기 위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 부모와 자녀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보다 좋은 어른의 모델이 되어 부모가 기다려 주고 믿어주고 격려하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었다.



| 금홍섭 부소장의 인문학 콘서트 |

급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서기

시대 읽어주는 남자, 금홍섭 부소장의
'대전의 역사와 과제' 중심으로

유성문화원 김옥배 기자

유성문화원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인문학 두 번째 콘서트가 4월 26일 문화원 3층에서 진행돼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이라는 지역의 자세한 역사와 유래, 지리학적 특성과 주민의 구성, 교통과 행정 및 과학도시로서의 위상과 당면한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기회의 마당으로 마련된 두 번째 인문학 콘서트였다.

강연자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금홍섭 부소장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고 대전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활동해왔다.

시민사회 단체활동과 평생교육에 대한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가 사는 대전에 대한 공감이 가는 이야기, 대전시가 당면한 문제와 시민들의 관심을 주제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대전 유성이라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선거 때 투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나 지역 단체의 정책이나 예산에 관심을 가질 때 현재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은 참석한 청중들의 참여 정치에 관한 관심을 일깨우는 자극이 되었다.

교통도시, 과학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대전이 원도심, 과학도시의 콘텐츠를 활용, 스토리텔링을 통한, 잠깐 머무는 재미없는 도시가 아닌 체류형 관광을 위한 새로운 관광 컨텐트 개발 등의 대안에 다들 공감하였다.

'카이스트'에서 근무하다 본국인 미국으로 귀국하시던 어떤 교수님은 "대전 갑천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는 전언을 들으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아름다운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강의실 같은 조용하고 편한 자리와 마련된 메모 도구, 잘 준비된 설명 자료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들으며 주요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 강사님과 청중의 집중도가 높아진 듯하였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도 교통문제, 정책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청중의 질문이 이어져 정해진 시간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역사회 문제에 같이 참여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응답하면서 주어진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대전의 특성과 과제에 대한, 그동안 살면서도 잘 몰랐던 대전의 역사와 각종 통계자료, 문제들과 해결 방안,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위기 등을 듣고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유성문화원 설립 30주년 기념 인문학 콘서트는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며 삶의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란다.



| 박석신 작가의 드로잉 콘서트 |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나의 이름이 꽃이 되다

유성문화원 황인동 기자



유성문화원 설립 30주년 기념 특성화 사업의 인문학 콘서트 3회차(2024. 5. 17.) 박석신 작가의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특강이 열렸다. 손새롬이 과장의 오프닝 인사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박작가는 전국에 강연을 다니며 대전을 알리고 있다. TJB ‘화첩기행’에 10년간 출연하기도 했다. KBS ‘영상앨범 산’에 출연한 방송인이다. 드로잉 콘서트 “당신의 이름이 꽃입니다.”라는 주제의 “이름 꽂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다. 이름값을 위해 이름을 걸고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박작가는 노래와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강의를 한다. 모든 시인들의 시 속에는 정신과 마음, 스토리가 깃들어 있다. 깊은 마음이 들어있는 시를 보며 참여자의 사연을 듣고 참여자의 이름을 토대로 이름 꽂 그림을 그려준다. “당신이 꽃입니다.” 라며 이름을 그리고 시를 더하여 선물로 증정한다. 참여자의 이름과 인생에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박석신 작가의 마음이 보인다.



사연에 희망을 담은 이름꽃 작품



환호하는 수강생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박작가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간을 마련하며 그림을 선물해왔다. 그는 “화가로 사는 동안 희망과 격려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한다.

“당신의 이름이 꽃입니다.” 이름을 그리는 꽃그림 화가 박석신의 책 제목이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으며, 나로 사는 법, 나의 진짜 이름 찾는 법을 말해 주는 책이다. 책에는 그가 이름 꽂을 그리게 된 사연이 있다. 기억에 남는 이름 꽂 사연들도 풀어 놓았다. 이야기마다 맑고 따뜻한 울림이 있다. 일상을 돌아보고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이번 강연은 수강생들의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듣고 즉석으로 작품화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의 손은 화사와 같다. 수강생 몇 명의 사연으로 그려내는 작품은 감동의 빛으로 물든다. 그 감동은 잔잔한 눈물도 자아낸다. 환호와 박수도 함께이다.

박작가는 잡초로 그림을 그리는 최초의 화가이다. 잡초로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잡초이지만 박작가는 잡초의 의미와 가치, 잡초의 사전적 의미와 이름 없음의 이유, 잡초의 매력과 귀여운 작은 풀꽃의 이름, 풀꽃의 가치와 소중함을 작품으로 담는다. 밟혀도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잡초 같은 인생을 강조한다.

박작가의 어머니는 그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농사로 인해 그 땅에서 구부러진 허리로 굽은 등을 산으로 표현하며 힘겨운 마음을 표현했다. 어머니의 아픈 사연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뭉클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강의 중에 시를 노래로 직접 불러주는 작가의 마음은 강의실을 따뜻한 온기가 맴도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감동 어린 강의가 큰 박수로 끝났다. 강의 후 모든 참가자에게 작품을 만들어 주었다. 예술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이 또한 감동이다. 다양한 재주로 봉사하는 멋진 인생, 무지개처럼 빛나는 영롱함이 있다. 이름으로 행복해지는 특별한 강연! 드로잉 콘서트 작가 박석신! 그의 이름이 꽃이 되어 만리 까지 영원히 빛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유성의 명물,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유성 호텔, 오늘을 끝으로 문 닫는다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2024년 3월 31일 오후 3시, 유성 호텔 대중목욕탕은 발디딜 틈이 없이 만원이었다.
오늘로 109년의 유성 관광호텔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유성에는 1915년 8월 자연 용출 온천을 공주 갑부 김갑순 씨가 본격적으로 개발해 1918년 2월 유성 온천 호텔(현 유성 호텔 온천수 공원)을 개관했다. 1966년 현 위치에 유성 관광호텔을 신축 이전했고 1986년 객실 125실 규모로 증축하고 1992년 객실 190실 규모로 증축해 특2급 호텔로 승격되었다. '86 아시안게임 대전 선수촌 본부 호텔', '88 올림픽 대전 선수촌 본부 호텔', '1993 대전 엑스포 본부 호텔', '2002 월드컵 미디어 본부 호텔', '2005 동아시아 국제축구 대회 본부 호텔'로 지정되는 등 1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행사에 크게 공헌했다.



유성온천유래



1918 최초의 유성온천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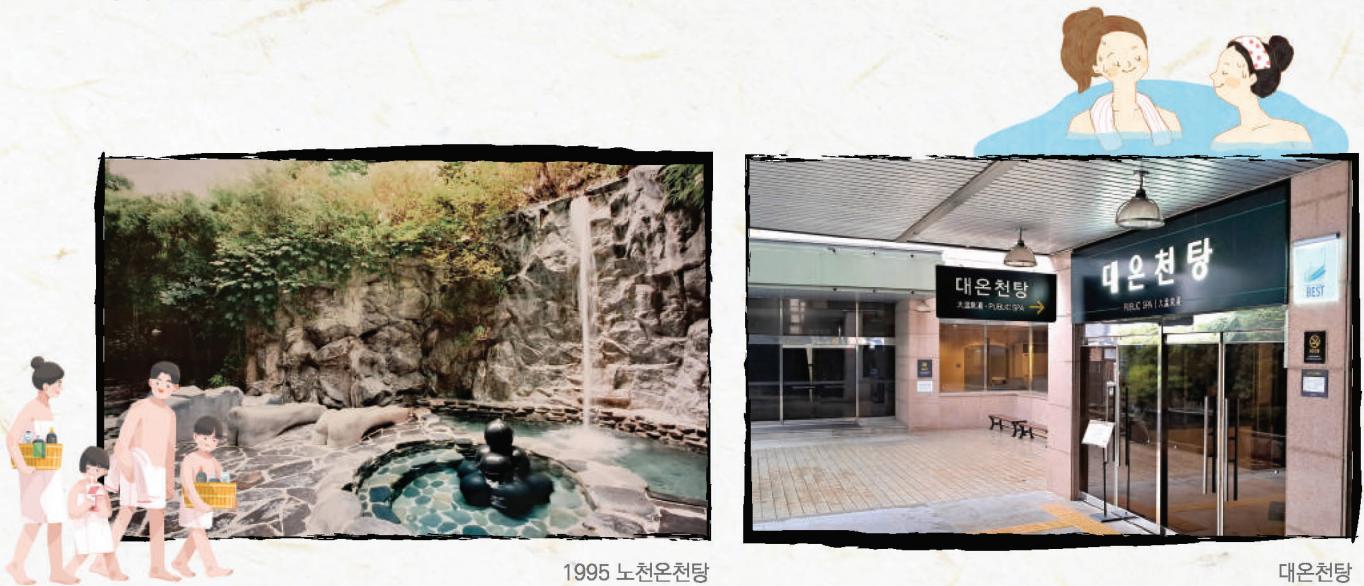


1966 유성호텔

유성 온천 지구는 1994년 국내 첫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그 당시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유성을 찾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 직전인 1919년 관광객은 93만 3,000여 명으로 1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유성구에서는 사적지로 보존하기 위해 최초의 온천수 시조공 주위를 공원으로 조성해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고 현재 호텔 자리와 주변은 24층 규모의 주상 복합·호텔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하고 나온 김충일 씨는 “아버님 손잡고 목욕하러 다녔던 게 벌써 80여 년이 됐네요. 갑자기 아버님이 그리워지네요. 오랫동안 함께 다녔던 친구들도 생각이 납니다.”며 “물이 좋고 특히 야외 폭포에서 물 마사지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 같습니다. 100년이 넘은 목욕탕이 없어진다니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아쉬워했다.

김영자 씨는 “대전에 이사와 여기서 목욕한 지가 50년이 다 됐네요. 오늘을 끝으로 영업을 마무리한다니 너무 섭섭합니다.”라며 “어떤 날은 사람이 많아 앉아 씻을 자리도 없고 물바가지 차지하기도 힘들어 자리다툼으로 시끄러웠던 날들이 추억으로 남게 되었네요.”라고 말했다.



1995 노천온천탕

대온천탕

문화공간 소소아트시네마를 찾아서 서명선 이사장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지역민과의 교류의 장**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는 문화가 있다. 예술이 있다. 영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신성은 고양되고 빛이 나는 것이다.”

그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는 분이 소소아트시네마 <서명선 이사장>이다. 서이사장은 “인생을 재미있게 놀자”라고 젊은 청춘시절부터 생각했다. 대학교 때부터 문화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문화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 노래도 하고 충문협(충남대전문화예술인협회)에서도 활동했다. 노는 방법을 유성문화원의 강의를 수강하며 여러 가지를 배워 갔다. 현재 유성문화원의 부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기도 하다.

<소소아트시네마>는 소소필름협동조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독립영화관이다.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정문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에는 영화관, 카페, 테라스 공간이 함께 있다. 소소아트시네마의 모체는 대전 아트시네마이다. 대전에 부족한 독립영화관이 필요함을 느끼며 영화관이 없는 대덕구에 오픈하게 되었다. 연말 송년회를 하다가 그냥 치기어린 마음으로 “영화관을 만들어야겠다.” 라며 제안해서 2023년 5월에 물 흐르듯이 개관했다. 영화관은 100여 명의 주민출자 최초영화관이다. 마음이 모아져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짧은 기간에 준비를 많이 했으며 올해 5월, 1주년을 맞이했다.



소소아트시네마 카페



청년 전시회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업영화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다. 작가적인 시점들이 있는 영화와 다큐들이 있다. 지금은 영상 매체가 너무 다양하다.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많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를 하기도 한다. 젊은 작가들이 미술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이렇게 1년이 지나다 보니 복합문화공간처럼 운영하고 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 대덕구 주민들과 대전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다. 영화관이 없기에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 보람도 있다. 마을공동체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소소아트시네마에서 1년간 전개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 GV(Guest Visit) 및 시네토크

연 3회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 진행했다.

- **절해고도** : 김미영 감독, 박종환, 최희진 배우
- **붉은 장미의 추억** : 백재호 감독, 김지원, 이인석, 김세중 배우
- **느티나무 아래** : 오정훈 감독, 김상은 진행



소소아트시네마 영화관 내부

🎬 기획상영

• 소소아트시네마 개관영화제 “소소한 오프닝”

대전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설립한 소소아트시네마의 개관을 축하하며 공간의 지향성과 미래를 담아 진행한 영화제이다. 섹션별로 나누어 총 10일간 진행했다.

- **시네마천국** : 메모리아, 환상의 마로나, 인히어런트 바이스,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 자객 섭은낭, 쓸모 있는 삶
- **영화의 젊음** : 12하고 24, 셀프-포트레이트 2020, 멜팅 아이스크림, 지옥만세
- **연대와 우정** : 나의 아저씨, 퍼스트 카우, 뽀띠 아만다, 알카拉斯의 여름

🎬 고민하는 영화 in D “대전영화포럼”

지역영화 지속가능을 위한 지역 소통,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대전만의 영화문화 확립을 위한 타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논의 테이블이다. 대전영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한국 지방정부 영화진흥정책 현황 분석 등 4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소소한 씨네콘서트

〈블루 자이언트〉 개봉 기념 및 연말행사를 위해 영화 상영과 음악공연을 접목시켜 인터뮤직과 공동주관으로 씨네 콘서트를 개최했다. 관객들의 새로운 영화 체험을 유도하여 극장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 동시대영화 기획전 ‘우리의 21세기’

현재 영화의 경향과 흐름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근 20년간의 영화를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지역청년커뮤니티 (주)MTS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영화적 관심사를 읽고 함께 지역영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이 되고자 했다.

• 패밀리데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상영 프로그램이다. 엄마의 땅 등 5편을 함께 했다. 첫 회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함께 초대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 예술단이 함께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 대전영화단체 협력사업

• 네트워크데이 ‘영화인의 밤’

대전영화포럼 이후 대전 영화인들과 전국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자리이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했다.

• 시네마테크대전 기획전 ‘창조를 향한 모험가 : 알리스 기 & 박남옥’

세계 최초 여성 감독 알리스 기-블라쉐 탄생 150주년,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박남옥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두 선구자의 도전정신과 가치를 발견해 보는 기획전이다.

• 유일한 영화 in D SF과학영화워크숍 “전략 : 독립의 오늘”

지역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점차 다양해 지는 플랫폼들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작가와 작가의 주목할 만한 영화를 함께 보고 유의미한 창작의 방식과 태도를 탐구해 보는 워크숍이다.

• 제5회 대전철도영화제

철도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한 도시 대전의 역사와 근대예술의 총아인 영화의 근원을 들여다 보는 지역특화 영화제이다. 시네마테크대전이 주최하고 제5회 대전철도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했다. 바람외 13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 FILM IN DAEDEOK

지역에서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을 지원하고 영화 소비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 청년 영화제이다. (주)MTS, INK에서 주최, 주관했다. 이외에 영화관 대관사업도 하고 있다. 공간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관도 가능하다.



야외 테라스-소소한 시네콘서트 모습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 공간을 조성해 왔다. 지역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만남’이다. 만나서 같이 보는 것, 정서교류의 장,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영화관의 존재 이유이다. 소소(少笑)아트시네마 이름처럼 지역민들과의 교류의 장이다.

소소아트시네마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키운 것이다. 향후 계획은 철도영화제를 확고히 자리잡아 부산국제영화제 등 큰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다. 대전의 특화 프로그램인 철도영화제도 더욱 키워보려 한다. 철도란 “여러가지 만나는 사람들의 우연성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연도 있고 같이 또 이동한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작품들을 골라서 영화제를 한다. 지금은 인지도가 부족하기에 일본, 대만 등 국제적인 작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자 한다. 안착을 시켜 대전이 영화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대전영화제 시그니처:signature 처럼 만들고자 한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 대전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영화를 활성화시키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 영화 장비 대여와 예술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민 프로그래머와 함께하는 특화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소소한 작은 공간이지만 크게 사회 저변에 스며들어 행복의 길잡이가 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문화 활동 속에서 찾는다. “문화는 연금”이라는 서이사장의 문화 통찰력이 경이롭다. 독립영화 공간, 소소아트시네마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진정한 정신이 고양되는 문화인이 되길 바란다. 이 공간을 찾는 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빛나기를 갈망한다.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성장한다.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 ‘소소아트시네마’이다.

차와 시 문화 공간 <사발> 박경숙 대표와의 인연 이야기

—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사람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어느날 우연히 방문한 사발 공간에서 차와 다과를 정성스레 내어놓은 인연을 시작으로 다시 만났다.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흔쾌히 만남은 이루어졌다.



박경숙 대표(이하 박대표)는 차가 좋아서 취미로 배우다가 원광대학교 디지털대학교 다도학과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대학원에서 동양학과 중 예대학과에서 이론을 공부했다. 차의 아버지 한재 이목선생의 오심지차(吾心之茶: 내 마음을 다스리는 차)의 뜻을 기리는 다도회와 인연, 다인의 한사람이 되었다. 다도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40대에 차 도구와 스님과 차를 마시는 분위기가 좋아 그런 관심으로 다도학과에 입학하여 이론을 공부했다.

차 문화 공간 <사발>이라 명명한 것은 소박하고 질감 있고 검박하기도 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모든 분들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발은 정겹고 투박하지만 두 손으로 잡았을 때 손에 쑥 들어오며 포근함이 스며든다. 차와 시낭송을 하는 문화 공간 <사발>이다. 마산 출신의 박대표는 국문학을 전공하여 연극을 하기도 했다. 연극은 모노드라마 같기도 해서 시낭송에 관심이 많았다. 세종으로 이사와 어느 날 아름다운 갈산서원에서 시낭송 강좌를 접하게 되었다. 한국적인 공간에 이끌려 들어가 시낭송을 배워 대회에 참가했다. 거기서 대상을 수상했다.(박팽년 시낭송 100주년 기념) 배한봉 시인의 창녕 “우포늪 왁새” 시를 낭송했다. 여름에 늪을 가보니 너무 좋았고 시인의



사발 공간

마음도 알게 되었다. 그 후 대상 수상자 대회에 참가하여 다시 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매주 동아리에서 시낭송을 함께 한다. 주(主)는 차(茶)이고 결가지는 시낭송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다시(茶詩) 만나리!!” 시낭송 모임이다. 다법(茶法) 중 세월이 흐르면서 행다(行茶)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 정말 좋은 차는 자연 그대로 우려서 마시며 블렌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박대표는 좋은 시를 낭송하고 단상들이 스치면 메모를 한다. 사발을 운영한지 7년이다. 원광대학교에서 행다(行茶) 강의를 하였다. 차를 좋아해서 즐겨 마신다. 사람들과 차를 나누고 차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즐겁다. 가르치기 보다는 함께 체험하며 소통한다. 박대표의 품성과 성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충주시 양성면에 한옥 스테이 선재마을이 있다. 그곳에서 시낭송을 하고 자연을 벗 삼아 찻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대표는 다도, 다식, 다화도 손수 만든다. 야생화 플로리스트이기도 하다. 20대에 모친의 영향을 받아 들꽃을 좋아한다. 물 흐르듯이 인연이 닿으면 조그마한 찻자리를 만든다. 한 캘리그라피 인연으로 글씨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보답으로 35명 정도 세종의 갤러리에서 찻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건강할 때 인연 따라 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조태연 다도 명장의 우전(녹차어린잎)을 정성들여 내어 주신다. 사발이란 작은 공간을 여러 공간으로 내어 주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 사발에서 독서토론 등 공간의 쓰임으로도 제공하고 싶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공간 사발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아름다운 인연들로 소소한 행복이 지속되길 바래본다.

마음 고요한 평화로운 공간 <사발>에서



다도 茶道



다식 茶食

전통놀이와 전래동화 어린이와 함께

인형극, 그림자인형극, 전통놀이가 한자리에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5월 22일 오전 9시, 유성문화원(원장 이재웅) 1층 전시실에서는 유성이알림단이 인형극과 그림자 인형극 공연, 3층 라온마실에서는 전통 놀이 체험을 돋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전 10시, 현관은 서구 멜타샌드 어린이집(원장 김경숙) 어린이 40여 명이 10명의 선생님과 학부모 3명의 손을 잡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인형극 그리고 그림자 인형극을 보기 위해 손님으로 입장했다.

40여 명의 어린이는 1층 전시실과 3층 라온마실에 2팀으로 나뉘어 전시실에서는 손새롬이(유성문화원) 과장, 라온마실에서는 김순희(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가 인사말과 오늘의 행사 내용을 설명했다. 몇 살이냐는 질문에 네 살이라며 손가락을 펼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움에 말없이 손가락만 3개를 펼치는 어린이가 있었다.

1층에서는 먼저 '삼 년 고개' 인형극이 진행됐고, 처음 인형극을 구경하는 꼬마 손님의 신기한 듯 쳐다보는 눈동자는 초롱초롱 빛났다. 다음에는 그림자 인형극으로 '유성온천 이야기'가 공연됐고 많은 박수와 함성으로 끝났다.



인형극과 그림자인형극을 구경한 어린이는 3층으로 자리를 옮겨 유성이전통단의 안내로 제기차기, 죽방울놀이, 콩 주머니 던지기, 윷놀이 등 우리의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최영순(멜타샌드 어린이집) 원감은 “전통 체험을 할 때 시니어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 인형극은 전래동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라며 “우리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으로 학부모님 세 분이 참석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체험을 마친 어린이와 선생님 그리고 유성이알림단과 유성이전통단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 한 장으로 마무리했다.



유성이행복단 행복공연

대전보훈요양원에서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자리한 대전보훈요양원. 150여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수많은 젊은 날을 지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가는 듯한 공간이다.



노래와 춤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유성이행복단”的 공연이다. 어버이날 특집으로 10여명의 출연진이 나와 “어버이 노래”로 무대의 문을 열었다. 공연 시작 전 워밍업으로 손가락운동, 주먹박수 등으로 몸을 풀어 주었다. 어르신들의 큰 박수와 환호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정인자 외 10여명의 출연진들이 한곡 씩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신나는 박수와 환호로 흥겨운 분위기는 달아오른다. 세 곡의 노래를 부르니 점점 분위기는 고조된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도라지춤”을 음악에 맞추어 춘다. 작은 바구니에 한아름 복과 선물을 담아 선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더한다.



단장님의 사회로 간간이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며 분위기는 무르익는다. 남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량무”는 정중동의 움직임으로 섬세함을 더하는 매력에 빠져들며 하나가 된다.

이어진 몇 곡의 노래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들이 잠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하다. 유성이행복단 출연진 대다수는 대한 가수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유성이행복단 활동으로는 한 달에 10여회 정도 공연을 한다. 연령대는 70대이다. 70대가 80~90대를 위로한다. 정인자 단장은 “공연을 하면서 자신들이 힐링된다.”고 상기된 행복한 모습이다. 어느 한순간 오늘 (2024. 5. 10.) 공연이 추억의 또 다른 한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문학 콘서트



4/13(토) 10:00 1층 전시실

내 자녀의 인간관계
- 소통과 조화로 크는 아이들



4/26(금) 14:00 3층 라온마실

시대 읽어주는 남자
- 급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서기



5/17(금) 14:00 3층 라온마실

내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 이름그림과 삶의 이야기



6/14(금) 14:00 2층 다목적실

밥 한번 먹자!
- 한식문화의 씨앗, 쌀 이야기



7/12(금) 19:00 3층 라온마실

블록으로 나를 만나다
- 조각 맞추기가 예술이 되기까지



8/9(금) 10:00 3층 라온마실

미디어시대의 독서교육
- 책으로 머리와 마음 키우기



9/20(금) 14:00 2층 다목적실

드라마로 보는 인생
-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



10/11(금) 14:00 2층 다목적실

슬기로운 환자생활
- 의사와 환자사이



11/7(목) 19:00 2층 다목적실

내 인생 음악에 실어~
- 힐링클래식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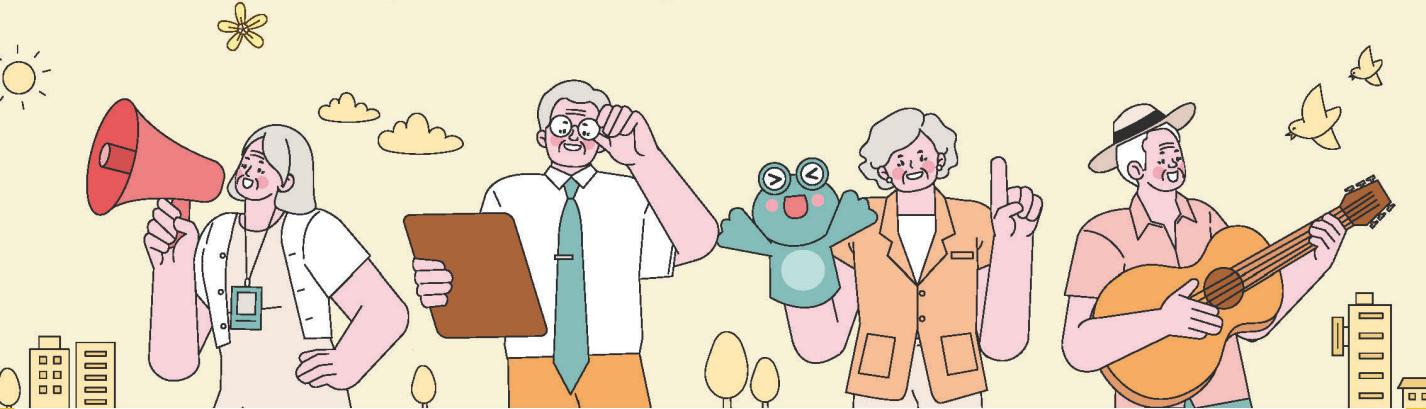
12/13(금) 19:00 2층 다목적실

나이듦에 대한 고찰
- 희망으로 걷는 마음 걸음마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 상담 접수

접수처 노인일자리 담당자 문의 042-823-3916



유성이알릴단

연극, 손인형, 그림자인형

유성지역에 관련된 설화, 구전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지역사회 알리는 공연 활동

유성이전통단

전통놀이 활동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보육 시설 등으로 전통놀이체험 및 전수하는 활동

유성이행복단

악 단

노래(트로트), 전통무용, 댄스, 다양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으로 장기요양 시설로 방문하여 활동

유성이합창단

합 창

다양한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등으로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대 형성 하는 활동



2024년 유성문화원 문화강좌 시간표

요일	강의시간	예체능실(4층)	전통문화실(4층)	취미교실(3층)	세미나실(3층)	라온마실(3층)	다목적실(2층)
	10:00 ~ 12:00	한국무용(월요) 이현숙 4.5	가락장구단 이춘옥 7.5	한문서예(월요) 구경희 7.5	배우기 쉬운 아코디언 김은순 9.0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총소리 9.0	김정선의 노래교실 김정선 6.0
월	13:00 ~ 15:00	청풍명월 동아리	경기민요 이순임 4.5	어반스케치 신지혜 7.5			
	15:30 ~ 17:30			행복한 상상전 동아리			
화	10:00 ~ 12:00	청풍명월 윤민숙 6.9		한글서예 윤병건 7.5	포크통기타(초급) 9:30 ~ 11:00 이석진 9.0		
	13:00 ~ 15:00	진도복춤 김원경 9.0		문인화 박경학 5.7	포크통기타(고급) 11:00 ~ 13:00 이석진 9.0		
	15:30 ~ 17:30		시조창 박학미 6.0		포크통기타(중급) 14:00 ~ 16:00 이석진 9.0		
수	10:00 ~ 12:00	김숙자류 입춤 김연의 9.0	경서도민요 & 평북농요 오현숙 5.7	벗생 & 수채화 김해숙 9.0			
	13:00 ~ 15:00	도살풀이 동아리	판소리 지유진 9.0			오카리나 한연호 9.0	
	15:30 ~ 17:30			전통 사군자 김영호 9.0			
목	10:00 ~ 12:00		김소원 퓨전장구 김소원 9.0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최윤정 10.5		우쿨렐레 백선경 9.0	
	13:00 ~ 15:00	한국무용(목요) 이현숙 6.0		유화 송채례 10.5		우쿨렐레 동아리	
	15:30 ~ 17:30			유미희 동아리			
	18:30 ~ 20:30	댄스스포츠(초/중급) 이영린 9.0	가야금 권정옥 6.9		해금(목요) 정다솔 6.9	대금과 단소 이재천 6.9	
금	10:00 ~ 12:00	태평무(오전) 강소정 9.0		한국화 김진순 7.5			
	13:00 ~ 15:00	태평무(오후) 강소정 9.0					
	15:30 ~ 17:30		가야금 병창 복선영 7.5	토탈 캘리그라피 양 영 9.0			
토	10:00 ~ 12:00			한문서예(토요) 구경희 5.7	팬플루트(오전) 박상봉 9.0	해금(토요) 정우라 6.9	
	12:40 ~ 14:40	댄스스포츠(고급) 이영린 9.0	유성농요 김숙희 4.5		팬플루트(오후) 박상봉 9.0	해금 동아리	

* 월 -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외 나머지 신규강좌는 미개설 / 4 ~ 6월 접수기간 중 인원미달시 완전 폐강

■ 기존강좌 ■ 신규강좌 ■ 전통강좌 ■ 동아리

2024년 유성문화원 회원모집



회원혜택

정기문화답사 참가(연 1회 무료)
각종 문화행사 우선 알림 및 참여 기회 제공
정기간행물 <문화유성> 배부

회원가입 안내

연회비 12만원

납부처 **하나은행 659-910031-38104** 유성문화원

유성문화원 042)823-3915

유성문화원 시설 대관 안내



층	장소	대관료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기타	냉·난방
1층	전시실 112㎡(약35평)	27만원(9시~17시) 54만원(full 9시 ~21시)	주간(월·화·수·목) 주말(금·토·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난방, 조명 무료 전시 종료일은 5시까지 철거 완료 요망 	
2층	다목적실 무대/좌석 80석/ 자유석 20석	36만원 53만원 89만원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8시~21시 종일 09시~17시 full 09시~21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그랜드피아노 5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터, 음향, 무선마이크(3) (노트북 사용자 자침) 	
3층	세미나실 좌석 50석	15만원	3시간 기준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마이크(1) 빔프로젝터(노트북 사용자 자침) 	무료
	라온마실 무대/좌석 50석/ 자유석 50석	1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마이크(1) 무료, 이동식 빔프로젝터 3만원 (노트북 사용자 자침) 소형피아노 3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 부담) 	
4층	전통문화실	13만원			음향 없음	
	예체능실	13만원			음향 무료	

문화유성

YUSEONG Cultural Center

유성문화원 표지 캘리그라피

유성문화원 캘리그라피 강사 심혜순

발행인 이재웅

발행일 2024년 6월

등록번호 대전 라 01023

발행처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전화 042)823-3915~6

팩스 042)823-3917

홈페이지 [www.yuseong.or.kr](#)

문화유성

2024
Vol.228
www.yuseong.or.kr



3416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Tel. 042-823-3915~6 Fax.042-823-3917